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내현적 자기애가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
: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제 순 하

내현적 자기애가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
: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김 정 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제 순 하

논문개요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경험회피가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404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 CNS), 수용 행동 질문지(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16 : AAQ-16), 인터넷 중독 척도(K-Scale)이며, 질문지를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해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애와 종속변인인 인터넷 중독, 매개변인인 경험회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과 경험회피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요인인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이 경험회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인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과 착취/자기중심성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가 아닌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경험회피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과 경쟁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을 비교했다. 그 결과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경험회피가 부분매개효과를 발휘하는 부분매개모형이 채택되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험회피를 거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내현적 자기애, 인터넷 중독, 경험회피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

II. 이론적 배경

1. 자기에	5
2. 내현적 자기에와 외현적 자기에	10
3. 인터넷 중독	15
4. 경험회피	18
5. 내현적 자기와 인터넷 중독	21
6. 내현적 자기에와 경험회피	23
7. 인터넷 중독과 경험회피	24

III. 연구문제 및 가설	26
----------------------	----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8
2. 연구도구	29
3. 분석방법	33

V. 연구결과

1.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34
2.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	36
3. 경험회피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38
4.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40
4.1 모형 검증	41
4.2 연구모형에서 나타난 경로계수와 매개효과	44
4.3 직접효과와 간접 효과	46

VI. 논의	47
--------------	----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1> DSM-IV-TR 진단기준	6
<표2> Akhtar와 Thompson(1982)의 자기에 하위유형 구분	12
<표3> 연구 참가자들의 일반적 특성	28
<표4>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30
<표5> 경험회피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31
<표6> 인터넷 중독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32
<표7>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34
<표8> 측정변인의 내용과 기술 통계치	35
<표9> 각 변인 간 상관계수	37
<표10> 경험회피에 대한 내현적 자기에의 각 하위요인들의 효과	38
<표11> 연구모형과 경쟁 모형의 적합도	43
<표12> 연구모형의 경로검증 결과	44
<표13> 주요 변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	46

그림 목 차.

<그림1> 연구모형 : 부분매개모형	27
<그림2> 연구모형	41
<그림3> 경쟁모형	41
<그림4> 내현적 자기애, 인터넷 중독, 경험회피의 경로계수	4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거 동양사회에서는 ‘우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타인과 함께 어울리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변해감에 따라 서구사회의 ‘개인주의’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왔고, ‘우리’보다는 ‘나’라는 개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를 사랑하자’라는 자기애가 강조되었다. 적절한 수준의 자기애는 개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으나 지나친 자기애는 개인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지나쳐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며 그 결과 주변 사람들과 반복적인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 성격으로 굳어져 지속적인 부적응 상태를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권석만, 한수정, 2000). DSM-IV에 따르면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지나치게 과장된 자존감, 칭찬에 대한 욕구, 감정 이입의 결여 등을 특징으로 한다.

자기애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자기애의 하위 유형들이 제안되기 시작하였고(Kohut, 1977), 자기애가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나뉠 수 있다는 경험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Wink(1991)는 기존의 자기애 척도들 간의 상관성이 낮다는 것에 착안하여 자기애 척도들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웅대성-과시성’, ‘취약성-민감성’ 두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이것은 자기애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분류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외현적 자기애는 ‘웅대성-과시성’ 요인과 관련이 깊다. 외현적 자기애자의 경우 거만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며, 착취적인 대인관계를 맺는다. 이는 DSM에 묘사된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기준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내현적 자기애는 ‘취약성-민감성’ 요인과 관련이 깊다. 내현적 자기애자의 경우 예민하고 소심하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주변을 늘 살피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겉보기에는 자기애와 관련성이 적어보이지만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병리적 웅대성과 취약한 자존감이라는 외현적 자기애와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나는 절대 상처받아서 안 된다.’는 방식으로 웅대한 자기상을 유지하고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가 외현적 자기애보다 훨씬 더 부적응적이고 역기능적이라고 한다(Gabbard, 1989; Gerstern, 1991; Kohut, 1997; Wink, 1991). 외현적 자기애자들의 경우 타인에게 칭찬을 요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자기고양 효과를 보게 된다. 반면에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비난과 비판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과 주변 상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주위를 잘 살피는 방식으로 행동하여 자기고양 효과를 얻지 못한다(박세란, 2004; Cooper, 2000). 실제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에 비해서 낮은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세란, 2004; 이원희, 2001; Raskin, Novacek, & Hogan, 1991). 이에 비해 우울과 불안수준, 분노경험, 완벽주의, 강박 증상, 부정적 자기개념, 주관적 불편감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동숙, 2004; 이원희, 2001; 이인숙, 2002; 정남운, 2001; 한수정, 1999; Wink, 1991).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 인터넷 중독에 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전부터 자기애자들은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되어 왔다(Conway, Kane, Ball, Poling & Rounsaville, 2003; Fernandez & Sztulman, 1998). 자기애성향자들은 타인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단으로만 인식하여 타인들과의 원만한 관계 맺기가 어렵고, 욕구가 충족되기 보다는 오히려 욕구가 좌절되는 상황을 맞이하기 쉽다. 이에 자기애 성향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중독의 대상이 된다. 현재까지 자기애가 물

질중독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Dougherty & Lesswing, 1989; Ireland et al., 1993), 최근에는 인터넷 중독과도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안도현, 2008; Jian-sheng, 2005; Kim, Namkoong, Kim, 2008; Lin, 2009). 그러나 이것은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기애에 관한 연구이다. 국내에서는 이계정(2008)이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의 관련성에 대해서 확인하였지만 아직까지 내현적 자기애만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중독을 연구한 것은 적은 실정이다. 이에 내현적 자기애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것이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가 병리적인 웅대성과 취약한 자기개념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지만 환경에 대한 대처방식이 다르고 다른 행동양상을 보이고 있어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경험회피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경험회피(Experiential Avoidance)는 내적 경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접촉하지 않으려하며 회피하거나 제거하려는 의도적인 노력과정으로,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취약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Hayes et al., 2004; Kashdan, Barrios, Forsyth & Steger, 2006).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현실에서 주관적인 불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Rose, 2002). 또한 이들은 회피성향을 갖고 있어(Dickinson et al., 2003)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회피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이 경험회피와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윤성민과 신희천(2007)은 경험회피와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둘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이 부정적 경험을 회피하기 위해 경험회피를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회피성향이나 회피적인 대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경향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팽현기, 2003; 하선근, 2008; Hutcheson et al., 2001; Jacobs, 1986; Wall, 2010), 비교적 최근의 개념으로 연구가 덜 된 경험회피와 인터넷 중독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경혐회피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에 있어서 경혐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대로 효과가 나타난다면 내현적 자기애와 경혐회피간의 관계를 알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이 두 변인이 어떤 방식으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기애(Narcissism)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자기애(Narcissism)는 자기-과장적이고 자기-몰두적인 성격유형을 묘사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기애는 1898년에 심리학자 H.Ellis가 한 남자의 자기성애(auto-eroticism)를 소개하면서 ‘성적인 감정이 상실되고 거의 전적으로 자기 찬미에 몰입하는 경향’을 ‘Narcissus-like’라고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심리학적 문헌에 처음 인용되었다.

이후 수많은 연구자들을 통해 자기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이에 비해 자기애에 대한 정의는 명료하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 ‘자기애’라는 한 용어로 서로 다른 차원의 현상들을 설명하려는 시도로 인하여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이며 둘째, 연구자마다 자기애의 범위와 양상, 기저의 심리적 기제, 발달과정들에 대해서 약간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먼저 DSM에서 진단명으로 사용되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후 진단명이 아닌 개인의 특성으로써 학자마다 어떻게 자기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1) 자기애성 성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서는 <표1>과 같이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DSM은 정신장애를 하나의 질병으로 보는 범주(category) 모델적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질병의 범주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권석만, 한수정, 2000).

<표 1> DSM-IV-TR 진단기준

지나치게 과장된 자존감, 칭찬에 대한 욕구, 그리고 감정이입의 결여와 같은 광범위한 양상이 초기 성인기에 시작되어 다양한 상황에서 다음 중 5개(또는 그 이상) 항목으로 나타난다.

- (1)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된 자존감을 갖고 있다.
 - (2) 끝없는 성공, 권력, 탁월성, 아름다움 또는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공상에 빠진다.
 - (3)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해서 다른 특별하거나 상류층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거나 그런 사람들과만 어울려야 한다고 믿는다.
 - (4) 과도한 찬사를 요구한다.
 - (5) 특권의식, 즉 특별대우를 받을 것에 대한 불합리한 기대감이나 그럴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특별대우나 복종을 바라는 불합리한 기대감을 가진다.
 - (6) 대인관계가 착취적, 즉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들을 이용한다.
 - (7)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타인들의 감정이나 요구를 인정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
 - (8) 자주 타인들과 질투하거나 타인들이 자신을 질투한다고 믿는다.
 - (9) 거만하고 방자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인다.
-

2) 학자들에 따른 자기에의 개념

Freud(1914)는 자신의 저서 ‘On Narcissism’에서 자기에를 ‘자기에 대한 리비도의 몰입’으로 보고 이를 처음으로 개념화 하였으며, 자기에를 일차적 자기에와 이차적 자기에가 구분하였다. 일차적 자기에는 아동이 태어나 자

신과 외부 환경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다. 아동은 자신이 올 때마다 주변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아동은 자신을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일차적 자기애로 어린 시절에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다. 이차적 자기애는 자신과 외부 환경을 구분하면서 생겨난다. 아동은 외부에 자신이 아닌 타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점차 성장하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대상애를 발달시키게 된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은 자신의 소중함을 확인하게 되고 이는 이차적 자기애로 이어진다. Freud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차적 자기애로 나아가지 못하고 일차적 자기애에 고착된 상태를 자기애적 장애로 정의하였다. 자기애적 장애는 자기 과대화, 자존감 손상에 대한 두려움, 과대망상이나 이상화 등의 방어기제, 자기충분성과 완벽성에 대한 갈망, 특권의식, 타인을 자신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태도, 자신의 실패에 대한 강한 공격성을 포함한다.

Kernberg(1975)은 어린 시절 양육자의 거부나 방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공감과 이해를 받지 못하고 냉정하고 애정결핍적인 양육을 받게 되면 자기애가 유발된다고 보았다.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동은 세상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방어적으로 성장하며, 자신을 사랑받지 못할 존재, 즉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된다. 이때 아동은 자기를 보호를 위해 자신의 장점을 부풀려 생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 웅대한 자기상이 발달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분노를 부모에게 투사하여 부모를 실제보다 훨씬 더 가혹적이고 박탈적인 존재로 지각하며, 그와 동시에 따뜻하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이상적인 양육자상을 상상하며 머릿속에 그린다. Kernberg는 웅대한 자기상과 부정적인 부모상, 이상적인 양육자상 이 세 가지가 융해되면서 자기애적 성격이 자리를 잡게 된다고 보았다.

Kernberg는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적응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적인 세계는 병리적이라고 보았다.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자존감과 우월감을 갖고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이와 동시에

타인의 관심과 존경을 바라고 외부 칭찬에 매우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며, 낮은 자존감, 공허감, 열등감, 불안정한 느낌 등을 갖는데 이를 자기애적 모순(Narcissistic paradox)이라고 한다. 자기애자들은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방어하기 위해 독선적 태도 경멸, 허영심, 우월감등의 자기애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자신을 이상화하며, 이상화를 방해하는 대상을 경멸하고 평가절하하여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하려 한다. 즉,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이상화하면서 자신의 자기애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상은 이상화하고 그렇지 않은 대상은 경멸하고 평가절하하는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Kernberg는 자기애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용보다 직면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Kohut(1971, 1977)은 전통적인 정신분석이 자기애를 병리적으로 본 것과 달리 자기애를 정상적인 발달과정의 하나로 보았으며 건강한 자기애는 삶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건강하게 발달하지 못한 자기애는 모든 병리의 근원으로 보았다. 아동이 건강한 자기애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공감과 적절한 좌절을 거쳐서 얻어지는 ‘적절하게 좌절된 거대자기’와 ‘적절하게 이상화된 부모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동이 적절한 공감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시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고자 거대한 자기상과 이상화된 부모상에 집착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기애적 성격이 발달한다고 보았다. 아동은 이상화된 부모상과 현실의 부모간의 괴리로 인해 지속적인 갈등을 겪게 되며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내부를 채워줄 대상 즉,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대상으로 존재하기를 바라게 된다.

Kohut은 자기애자들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으며, 스스로의 내적 자원에 의지하지 못하고 타인의 칭찬에 의존하며,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외부 대상에 대해 극단적인 수치심과 분노감을 느껴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러한 내현적 자기애를 치료하게 위해서 치료자는 자기애자가 새로운 자기대상 경험을 통해 공감을 받고, 중단되었던 발달단계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치료자가 자신의 부

족한 점과 공감의 실패에 대해서 수용하고, 치료자에 대한 자기애자들의 이상화를 잘 견디며 적절한 좌절을 주는 것이 좋은 치료라고 하였다.

Millon(1985)은 기존의 정신역동이론이 아닌 사회학습이론의 측면에서 자기애를 설명하였다. 그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대평가에 초점을 둔 ‘과잉보호 가설’을 제안하였다. 부모가 자녀를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고 지나치게 많은 애정을 주게 되면 아동은 부모가 주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이 특별하고 완벽하다고 믿게 된다. 이로 인해 아동은 고양된 자기가치감과 특권의식을 갖게 되고 이것이 자기애적 성격으로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Millon은 부모의 과대평가로 인해 자기애적 성격이 발달한다고 보았다.

2.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

(Covert Narcissism and Overt Narcissism)

자기애는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하기 위해서 웅대한 자기상을 방어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 역동이 같다고 하더라도 자기애자들마다 나타나는 행동 양상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에 따라서 연구자들은 자기애를 분류하였다. 그 대표적인 분류가 외현적 자기애(Overt Narcissism)와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로의 구분이다. 이러한 구분은 이론적으로는 물론 경험적으로도 지지되고 있다(Akhtar & Thomson, 1982; Cooper, 1981; Cooper & Renningstam, 1992; Gabbard, 1989; Gersten, 1991; Kohut, 1977; Masterson, 1981; Wink, 1991).

Wink(1991)는 기존의 자기애 척도들 간의 상관성이 낮다는데 착안하여 기존의 자기애 척도들 간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Raskin과 Novacek(1989)의 자기애척도, Morey 등(1985)의 자기애척도, Wink와 Gough(1990)의 자기애척도, Ashby 등(1979)의 자기애적 성격장애 척도, Pepper와 Strng(1958)의 자아민감성척도, Serkownek(1975)의 자기애-과민성 척도 총 6개의 척도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웅대성-과시성(Grandeur & Exhibitionism)’, ‘취약성-민감성(Vulnerability & Sensitivity)’ 두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웅대성-과시성’요인 높은 경우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특별대우를 요구하고 타인의 욕구를 무시하는 행동양식을 보이는데 이는 외현적 자기애와 관련이 있다. 반면에 ‘취약성-민감성’요인이 높은 경우 방어적이고, 지나치게 민감하며, 감정을 억제하고 타인의 시선을 늘 의식하는 행동양식을 보이는데 이는 내현적 자기애와 관련이 있다. Wink가 분류한 이 두 요인은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자기애가 존재함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고, Kernberg(1975)와 Kohut(1977)이 임상적 관찰을 기반으로 제안했던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구분을 지지해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 후속연구들에 의해서 지지되었다(Hendin & Cheek, 1997;

Rathvon & Holmstorm, 1996).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모두 웅대한 자기상과 취약한 자존감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나 둘을 비교해보면 나타나는 양상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외현적 자기애는 DSM-IV에 제시된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에 잘 부합된다. 외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특권의식을 갖고 착취적인 대인관계를 맺는다. 이들의 행동은 제 3자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자기애적인 특성이 잘 드러난다.

반면에 내현적 자기애자는 수줍음을 잘 타고 타인의 관심을 불편해한다.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기 쉽고, 쉽게 수치심을 느끼기도 한다. 소심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매우 신경을 쓰며 타인 앞에서 실수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모습을 떠올렸을 때 단지 수줍음이 많거나 예민한 사람 정도로 생각될 수 있지만 이는 겉모습에 의한 판단일 뿐이다.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나는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고, 거절당해서도 안 되며, 못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밋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자신이 무언가를 못하거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권석만, 한수정, 2000).

Akhtar와 Thompson(1982)은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을 자기개념, 대인관계, 사회적 적응, 윤리와 이상, 사랑과 성, 인지양식의 6개 범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그 내용은 <표2>에 제시되어있다.

<표2> Akhtar와 Thompson(1982)의 자기에 하위유형 구분

	외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에
자기개념	웅대성, 고양된 자기존중, 영민함에 대한 환상들, 자신이 독특하다는 과장된 감각, 특권의식, 자신이 취약하지 않다는 착각	열등감, 자기의심, 수줍음, 취약함, 비판과 현실적 좌절에 대한 민감성, 힘과 명예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대인관계	피상적인 인간관계,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는 강렬한 욕구, 타인에 대한 멸시와 평가절하하는 경향, 공감의 부족, 집단 활동에 진심으로 참여하지 않음, 종종 '화려한 고립'으로 철수	타인에 대한 만성적인 이상화와 강한 시기심, 칭찬에 대한 강한 갈망
사회적 적응	사회적 성공, 과시 욕구를 위한 거짓 승화, 강한 야심	목표 없음, 만성적인 지루함, 불확실성, 직업적·사회적인 정체성에 대한 불만족, 다양하지만 피상적인 흥미
윤리와 이상	돈에 대한 거짓된 경멸, 독특하고 균형이 맞지 않는 도덕성, 겉으로는 도덕적·사회정치적·심미적 문제들에 대한 열성을 보임	진실 된 관여가 부족, 거짓말, 호의를 얻기 위해 쉽게 가치를 바꿈, 타락하기 쉬움, 권위에 대한 불경
사랑과 성	결혼 불안정, 유혹적, 문란한 성생활, 성적 억제 부족, 자주 사랑에 빠짐	사랑을 지속시키지 못함, 사랑의 대상을 분리된 별개의 개인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연장으로 취급, 성도착적인 환상이나 성적 일탈을 보임
인지양식	현실을 자기중심적으로 지각, 명확하고 웅변적인 말투, 자기중심적인 현실지각, 논쟁에서 회피적이지만 논리적으로 일관된 주장	사건의 객관적인 측면에 주의를 덜 기울임, 기억에 공백이 있기도 함, 과도하게 추상적이었다가 구체적이기를 반복, 자존감이 위협 당했을 때 현실의 의미를 변경하는 경향

이렇듯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는 공통분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Cooper(2000)는 자기개념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방법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ooper는 외현적 자기애자가 자신을 과시하고 타인에게 칭찬을 요구하며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면서 자기개념을 보호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자는 가능한 한 비난과 비판을 피하려 하며 이를 위해 타인의 시선과 주변 상황에 신경을 많이 쓰며 주위를 잘 살피는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자기개념을 보호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행동 양상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또한 정남운(2001)은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타인의 긍정적인 평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이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부정적인 평가를 예상하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며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행동 양상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외현적 자기애는 긍정적 평가에 초점을 두어 자신의 웅대성을 확인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부정적인 평가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가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방어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응 및 병리도 다르게 나타난다.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내현적 자기애가 외현적 자기애보다 더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Gabbard, 1989; Gerstern, 1991; Kohut, 1997; Wink, 1991)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경우 자존감, 자기 효능감이 높았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가 있더라도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며 크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지속적인 자기고양으로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만성적인 자기고양으로부터 이득을 얻는다. 반면에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깊은 불안정성을 갖고 있어 자기고양 이득을 얻지 못한다(박세란, 2004; 이원희, 2001; Raskin, Novacek, & Hogan, 1991). 이러한 이유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에 비해 더 높은 주관적 불편감과 더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한다(Rose, 2002).

또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더 우울하고 적대적이며 타인 비하의 사고를 더 많이 보이고 분노를 많이 경험하지만 그 분노를 억제해 만성적인 분노상태에 머무른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억압된 분노가 어느 순간 폭발하면 공격적이고 극단적이 될 소지가 있다.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경우 오히려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분노를 장기간 유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내현적 자기에가 더 부적응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박세란, 2004; 백승혜, 2005; 이준득, 2005). 이 외에도 내현적 자기에에는 우울증상, 불안증상, 대인불안, 신경증적 증상, 완벽주의, 강박 증상, 부정적 자기개념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박동숙, 2004; 이원희, 2001; 이인숙, 2002; 정남운, 2001; 한수정, 1999; Wink, 1991).

이처럼 내현적 자기에가 개인의 적응에 있어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연구들은 주로 외현적 자기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에 내현적 자기에에 관한 연구들이 필요하겠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를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3.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

빠르게 인터넷이 보급되고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만큼 인터넷 중독에 관한 문제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중독의 진단기준은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무엇이 인터넷 중독인지에 대한 합의된 정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 초기부터 연구해온 Goldberg과 Young를 중심으로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중독은 Goldberg(1996)가 처음 제안한 용어로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과도한 인터넷 사용과 인터넷 활동에 대한 집착 및 의존성을 의미한다. 인터넷을 해야 만족을 느끼는 '내성'과 인터넷 사용을 중단하거나 감소시키면 정신운동성 초조와 불안 혹은 인터넷에 대한 강박적 사고나 환상(또는 백일몽)등의 증상이 일어나는 '금단'이 나타나고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 중요한 사회적·직업적 활동이 손상될 때 이를 인터넷 중독 장애라고 불렀다.

Young(1996)은 인터넷이 알코올이나 약물처럼 중독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인터넷 중독을 '강박적인 사고와 행동, 내성과 금단, 의도한 것 이상의 과도한 사용, 지속적인 욕구, 다른 활동에서의 흥미감소,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무시'로 정의하였다. Young(1998)은 DSM-IV의 병적 도박의 기준을 이용하여 다음 8가지 기준 중 5가지 이상이면 인터넷 중독으로 진단했다. 1) 오랜 시간의 온라인 접속, 2) 오프라인 시 금단현상, 3) 의도했던 것보다 자주 인터넷에 접속, 4) 접속을 줄이려는 시도의 실패, 5) 온라인 접속시간을 늘리기 위한 시도 6) 사회생활, 직장생활 또는 여가활동에 대한 흥미 상실, 7)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생활상의 문제 발생, 8)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빨리 접속하고 싶어 함.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학업 수행의 문제를 일으키고, 업무 시간에 인터넷을 사용하여 직업을 잃게 되는 등 개인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Young,1999). 현재까지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사용으로 인하여 생활에서의 부정적인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하고자 하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분명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박상규 등, 2009).

인터넷 중독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크게 3가지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사회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국내 인터넷 사용자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0년 5월을 기준으로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수는 3,701만명으로 2000년(1,904만명)이후 10년 동안 약 2배(1,797만명)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이용률은 2000년 44.7%에서 77.8%로 33.1% 증가했다.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교육들이 이루어져 인터넷 보급을 도왔다. 그러나 이에 비해 인터넷 사용을 관리·조절할 수 있는 방법과 인터넷 중독에 대한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는 인터넷 자체의 요인이다. 인터넷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공간이다. 인터넷은 면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아닌 가상공간에서 가상적인 자기를 만들어 다양한 정체감을 형성하여 대인관계를 만들 수 있으며, 현실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은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며, 시·공간의 한계 극복할 수 있고, 이용함에 있어 경제적인 제약이 적어 인터넷 중독자를 양산하기에 충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김은미, 김현주, 2004; 박종민, 오종환, 2001; Goldberg, 1996, Young, 1996).

셋째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다. Young(1996)은 심각한 정서적 문제가 있는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 이전에 중독 경험이 있던 사람, 자신의 정체감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잘 빠져든다고 하였으며, 내성적인 사람만이 인터넷에 중독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김선우, 2002 재인용). 보통 인터넷 중독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이 낮고(안차수, 2008) 충동성이 높으며(김철민, 2003), 우울과 불안, 외로움을 잘 느낀다고 보고되고 있다(강지선, 1999; 김민정, 도현심, 박보경, 이혜린, 2009; 안도연, 2008). 또한 부족한 의사소통 기술과 대인관계

기술을 갖고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회피적이라고 언급되고 있다(권재한, 2006; 박정은, 2001; 이선숙, 2005).

이처럼 사회환경적 요인과 인터넷 자체의 요인,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인터넷 진흥원(2010)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인터넷 중독률은 8.5%였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로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4. 경험회피(Experiential Avoidance)

경험 회피(Experiential Avoidance)는 신체, 감각, 정서, 사고, 기억, 심상 등의 원치 않는 내적 경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접촉하지 않으려하며 회피하거나 제거하려는 의도적인 노력과정을 의미한다(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rosahl, 1996; Hayes et al. 2004). 이러한 경험회피를 구성하는 요소는 첫째, 원치 않는 내적 경험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 둘째, 사적인 사건들을 기꺼이 경험하고 접촉하기를 꺼려하는 것, 셋째, 사적 사건들 통제하거나 회피하려는 노력이다(Hayes, 1999).

원치 않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경험회피 전략을 사용하면 대개 불편감이 즉각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경험회피를 사용한 개인에게 부적 강화로 작용하게 되어 경험 회피를 자주 사용하게끔 한다. 하지만 이것은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효과일 뿐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채 회피 전략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Hayes et al., 1996).

어떠한 사고나 감정을 회피하고자 반복적으로 노력할 때 그 노력이 성공하기 보다는 피하려고 했던 사고나 감정이 오히려 증가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Gold & Wegner, 1995; Wegner & Zanakos, 1994). 개인이 원치 않고 혐오적이며 불쾌하게 다가오는 내적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해롭지 않을 수 있다. 혐오적이고 불쾌한 사고나 감정들을 회피하고자하는 반복적인 노력이 오히려 개인의 부정적인 내적 경험을 증가시킨다(Hayes et al., 2004).

회피 시도는 역설적인 내적 경험의 증가 뿐 아니라 생리적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서를 유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정서를 감추도록 지시한 연구를 보면 정서를 감추도록 지시받은 집단의 피험자들은 자율신경계의 활성화를 뜻하는 피부전도율의 증가와 손 맥박 전도 시간의 감소를 보였다(Gross & Levenson, 1993, 1997).

또한 회피 시도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방해한다. 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 회피 시도를 위해 에너지를 사용할 시 그만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감소하게 된다. 회피 시도는 인지 과제 수행의 질을 떨어뜨리고 인지적 자원의 활용을 저해한다는 연구가 이를 뒷받침 한다고 할 수 있다(Baumeister, Bratslavsky, Muraven & Tice, 1998).

지속적인 회피 시도는 한정된 에너지를 소비하게 함으로써 자아의 힘을 감소시킨다(Charles Brenner, 1973). 뿐만 아니라 회피시도는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개인의 성장의 기회를 박탈한다. 부정적인 경험이 개인에게 고통을 유발할 수 있지만 악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좌절경험은 오히려 건강한 성장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회피 시도 시 순간의 불쾌한 경험은 피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성장의 기회 역시 피하게 되어 개인의 성장은 이루기 어렵게 된다(Greenberg & Safran, 1987). 지속적인 회피는 오히려 자신이 진실되지 못하고 스스로가 자신으로부터 분리되는 느낌이 커지게 되어 주관적인 불편감을 높인다(Hayes et al., 2004).

종합해보면 회피 시도는 부정적인 경험을 즉각적으로 피할 수 있다는 단기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경험을 증가, 생리적 각성의 증가, 에너지 사용의 방해, 개인의 성장 저해 등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경험회피는 일반적인 심리적 취약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Hayes et al., 2004; Kashdan, Barrios, Forsyth & Steger, 2006).

경험회피와 관련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그 중 가장 연구가 많이 된 것이 불안과 관련된 연구이다. 경험회피는 각종 불안증상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데, 사회불안증상, 일반화된 불안증상, 시험불안, PTSD 등이 정적 상관을 보인다(윤성민, 신희천, 2007; 이정은, 2005; 이정은, 조용래, 2007; 조용래, 2008; 조용래, 채숙희, 최연숙, 2009; Morina, 2007; Tull, Gratz, Salters & Roemer, 2004). 또한 경험회피는 불안과 관련된 병리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이 제안되고 있다(Feldner, Zvolensky, Eifert, & Spira, 2003;

Karekla, Forsyth, & Kelly, 2004). 불안에 직면했을 시 불안이 감소될 수 있고, 불안을 회피함으로써 불안에 대한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리면 경험회피와 불안과의 관련성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 외에도 경험회피는 우울, 불안, 일반적인 정신문제, 악몽에 따른 고통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김환, 이훈진, 2007; 심영숙, 이영호, 2009; 천동학, 2008; Degenova, Patton, Jurich & MacKermid, 1994). 반면의 삶의 만족도, 삶의 질, 심리적 안녕감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과는 부적의 상관을 보이고 있다(조용래, 채숙희, 최연숙, 2009; Hayes, 2004). 또한 경험회피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경험 및 정서의 낮은 빈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ross & John 2003 Kashdan & Steger, 2006) 회피시도로 인해 개인의 에너지가 소모되며 이를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정서경험 축소되는 것이다(Kashdan at al., 2006). 이처럼 경험회피에 대한 연구들은 경험회피가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일관되게 나타내고 있다.

5.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

자기애는 자존감을 유지하는 내적 구조가 없거나 결핍되어 원초적 자기애에 고착되어있는 상태이다. 중독은 부재하는 내적 구조를 보상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Kernberg, 1975; Kohut, 1971). 보통 자기애자들은 자기타당화를 위해 타인에게 의존한다. 그러나 이들은 타인을 자신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일부로 바라보고 있어 타인과 적절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원하던 대인경험의 좌절과 이로 인한 자기타당화의 실패는 자기애자에게 우울이나 외로움, 절망감을 불러일으킨다. 자기애자들에게 이러한 감정은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자기애자들은 이를 없애기 위해 다른 대상을 찾게 된다. 그것이 바로 물질이다. 물질은 자기애자들을 거절할 리 없는 대상으로 자기애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자기애자들은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물질을 찾게 되며, 이것이 반복이 바로 중독이다. 즉, 자기애 성향자들이 타인을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봄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좌절되며 이로 인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새로운 수단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인 것이다. 자기애 성향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물질에 의존하여 자기타당화를 해나간다(Levin, 1987, 2004). 결과적으로 볼 때 자기애 성향자들은 중독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Conway, Kane, Ball, Poling & Rounsaville, 2003 ; Fernandez & Sztulman, 1998).

이러한 이론과 연구결과는 인터넷 중독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과거에는 물질 중독을 중심으로 중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행동중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박중독, 쇼핑중독과 같은 행동 중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질중독과 행동중독 두 가지는 중독의 대상이 다를 뿐 기저는 같다고 여겨지고 있고(박상규 등, 2009), 인터넷 중독이 행동 중독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자기애 성향자들이 인터넷 중독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에는 이용 가능한 수많은 콘텐츠가

존재하며 이것들에 접근하기가 매우 쉽다. 또한 인터넷은 알코올이나 마약 등의 물질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한다거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를 물질보다는 적게 가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인터넷이 중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애 성향과 인터넷 중독 간의 정적 상관이 보고되고 있다(안도현, 2008; Jian-sheng, 2005; Kim, Namkoong, Kim, 2008; Lin, 2009).

이처럼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나 자기애를 각 하위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국내에서는 이계정(2006)이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간의 상관을 밝혔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시 확인해보고자 한다.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6. 내현적 자기에와 경험회피

정남운(2001)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타인의 감정에 둔하고 회피적인 대인관계 행동을 보이며,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만성적인 과민성은 자신들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사회적으로 철수하고 회피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이들은 비판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Akhtar & Thomson, 1982), 어떠한 비판과 비난도 차단하기 위해 타인과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며, 비난의 단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을 피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지나치게 민감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비난을 회피하는 방어적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박세란, 2004).

본 연구에서 경험회피를 매개요인으로 설정한 이유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갖고 있는 회피성향 때문이다(Dickinson et al., 2003).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를 위해서 회피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를 고려할 때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자기개념을 보호하기 위해 경험회피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성민과 신희천(2007)의 연구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경험회피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경험회피는 비교적 최근의 개념으로 경험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가진 회피 성향과 경험회피라는 개념의 관련성을 알아볼 것이다.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실제 경험회피 수준이 높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하위요인 중 어떤 요인이 경험회피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7. 인터넷 중독과 경험회피

중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중독을 크게 물질중독과 행동중독 두 가지로 나누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중독의 기저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공통된 뇌 회로가 관여하고, 유사한 일련의 단계¹⁾를 거치며, 내성과 금단이 발달할 수 있고, 충동성이 초기 단계에 중요하며, 강박성이 행동 유지에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등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Hollander & Allen, 2006) 인터넷 중독 역시 하나의 중독으로 위에 언급된 것과 같은 기저를 가지며, 인터넷의 보급과 동시에 중독 영역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 자기통제력, 우울, 불안, 외로움, 빈약한 사회적 기술과 충동성의 부족을 보인다. 심리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인터넷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볼 때 취약한 개인은 인터넷 중독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박상규 등, 2009). Hayes와 Pierson(2005)과 Kingston 등(2010)은 높은 경험회피 수준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경험회피와 인터넷 중독의 관련성에 관한 현재까지의 직접적인 연구들은 적은 편이다. 다만 중독의 기저가 같은 것을 고려할 때 유사한 연구들을 통해서 경험회피와 인터넷 중독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경험회피와 중독에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물질중독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기존의 연구들은 경험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물질 남용 경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Batten & Hayes, 2005; Greco, Heffner, Poe, Ritchie, Polak, Lynch, 2005). 또한 물질중독의 치료 효과를 보는 연구들 중 경험회피를 측정하는 척도인 AAQ를 사용한 연구들을 보면, 물질중독 경향의 감소와 동시에 AAQ의 점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물질 중독과 경험회피간

1) 해당 행위를 하기 전에 신체적 및 정서적 각성이 유발되는 시기가 있고, 행위 중에는 쾌락이나 안심을 느끼며, 행위 후에는 각성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후회와 죄책감이 뒤따라 나오는 일련의 과정

의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

경험회피 외에도 회피와 중독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Wall(2010)등은 정서적인 회피를 사용할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다고 보고였으며, Jacobs(1986)와 Hutcheson등(2001)의 연구는 회피행동이 중독과 관련된 경향을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Baker(2004)등은 불편한 감정이나 현상들을 회피하기 위하여 회피행동을 함으로써 부적 강화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중독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하선근(2008)이 회피적인 정서조절 양식을 사용할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다고 하였고, 팽현기(2003)는 사회적 회피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비록 경험회피와 인터넷 중독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위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경험회피와 인터넷 중독의 관련성이 시사되고 있다. 특히 경험회피는 단 한 번의 시도가 아니라 원치 않는 내적 경험을 피하려는 노력으로 지속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rosahl, 1996). 이를 고려할 때 경험회피를 했던 사람은 다시 경험회피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경험회피의 수단으로 인터넷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둘 간의 관계가 밝혀진다면 인터넷 중독 치료에 있어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변인으로 경험회피를 살펴봄으로써, 인터넷 중독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내현적 자기애, 인터넷 중독, 경험회피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 내현적 자기애, 인터넷 중독, 경험회피 간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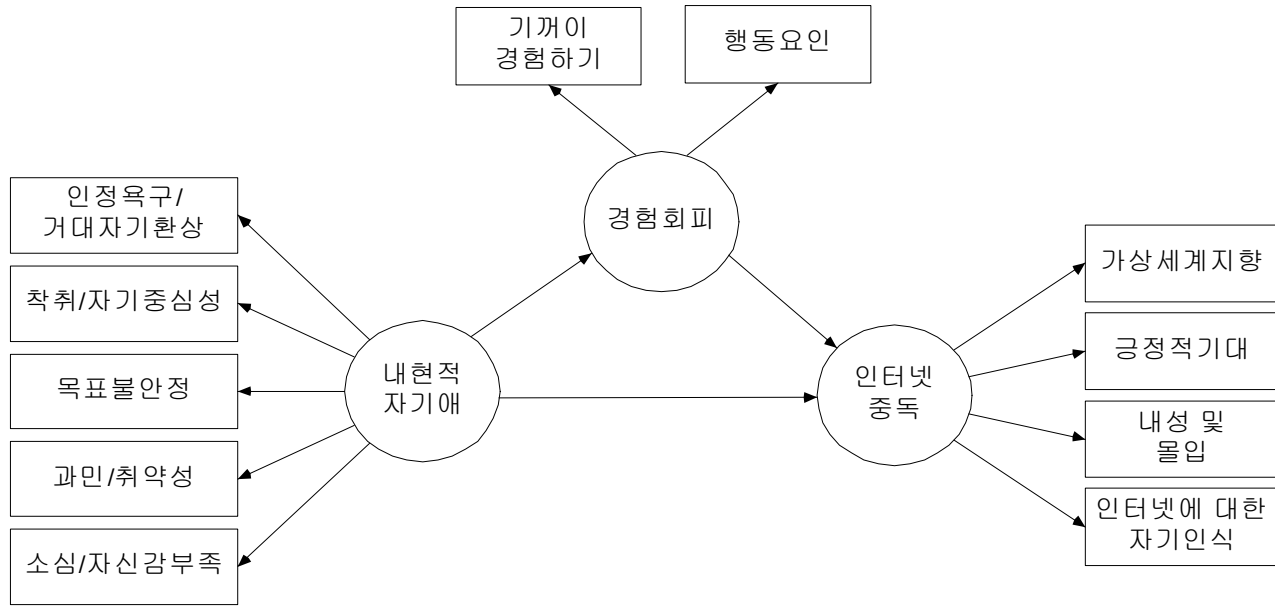
연구문제 2.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들 중 어떤 하위요인이 경험회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요인인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만이 경험회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경험회피가 매개하는가?

가설 3. 내현적 자기애는 경험회피를 매개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완전매개 모형보다 부분매개모형이 적합할 것이다.



<그림1> 연구모형 : 부분매개모형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20대 대학생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총 500부의 설문지 중 458부가 수거되었다. 이 중 무작위 혹은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와 미응답 문항이 있는 설문지 54부를 제외한 40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21.11세였으며 평균 학년은 2.32학년 이었다. 자세한 연구 참가자들의 특성은 <표3>에 제시하였다.

<표3> 연구 참가자들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404)	백분율(%)
성별	남자	134명	33.2%
	여자	270명	66.8%
연령	만 18~20세	189명	46.8%
	만 21~25세	203명	51.1%
	만 26세 이상	12명	2.8%
학년	1학년	141명	34.9%
	2학년	75명	18.6%
	3학년	107명	26.5%
	4학년	81명	20.0%

2. 연구도구

1)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 CNS)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개발한 내현적 자기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총 45문항으로 5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45점~22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강선희(2002)는 요인분석을 통해 5개의 하위척도를 도출하여 이를 공통요인과 고유요인으로 나누었다. 공통요인은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요인이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매사에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은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착취적인 대인관계와 특권의식, 자기중심성을 반영하는 ‘착취/자기중심성’이 이에 해당된다. 고유요인은 외현적 자기애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현적 자기애만이 갖고 있는 요인이다. 목표 설정의 어려움과 불확실성, 직업적이고 사회적인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 및 불만족을 나타내는 ‘목표불안정’, 자신을 불행하고 무가치하게 느끼고 평가에 예민한 ‘과민/취약성’, 소심하고 내향적이며 자신감이 부족한 ‘소심/자신감 부족’이 이에 해당된다.

강선희(2002)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90, 각 하위척도들의 Cronbach's α 는 .81, .74, .89, .80, .7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α 는 .92였으며 각 하위요인들의 Cronbach's α 는 .78, .78, .89, .83, .82이었다.

<표4>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신뢰도
인정욕구/ 거대자기환상	2, 6, 7, 13, 17, 24, 33, 38, 43	(9문항) .78
착취/ 자기중심성	4, 9, 11, 12, 16, 22, 27, 35, 45	(9문항) .78
목표불안정	5, 15, 20*, 23, 29, 30, 37*, 42, 44	(9문항) .89
과민/취약성	8, 10, 14, 19, 25, 26, 31, 36, 40	(10문항) .83
소심/ 자신감 부족	1, 3, 18, 21, 28, 32, 34*, 39, 41	(8문항) .82
전체		(45문항) .92

*은 역채점

2) 수용 행동 질문지

(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16 : AAQ-16)

경험 회피를 측정하기 위해서 Hayes 등(2004)이 개발한 수용 행동 질문지(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16 : AAQ-16)를 문헌미(200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경험 회피와 통제, 내적 경험에 대한 부정적 평가, 정서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려는 경향성을 측정하고 있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다. 9문항형(AAQ-9)과 16문항형(AAQ-16)이 있는데, 더 민감한 측정을 위해 16항형을 사용하였다. AAQ-16은 7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16점~1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회피가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으로는 내적인 사건을 기꺼이 경험하려는 경향을 측정하

는 ‘기꺼이 경험하기’와 내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행동요인’이 있다.

문현미(2006)의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82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전체 .77이었으며, 각 하위요인들의 Cronbach’ α 는 .62, .64였다.

<표5> 경험회피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신뢰도
기꺼이 경험하기	1*, 2, 6, 9, 12*, 13*, 14, 15, 16* (9문항)	.62
행동요인	3, 4*, 5*, 7*, 8, 10*, 11 (7문항)	.64
전체	(16문항)	.77

*은 역채점

3) 인터넷 중독 척도(K-척도)

인터넷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오원이 등(2005)이 개발한 인터넷 중독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4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점수의 범위는 20점~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총 4개로 현실보다 인터넷 세상에 의미를 두고 지향하는 정도인 ‘가상세계 지향’,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기대와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자유감을 나타내는 ‘긍정적 기대’, 점점 더 많은 시간 인터넷 사용을 해야 만족감을 느끼며 사용조절에 실패한 경험 정도인 ‘내성 및 몰입’,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 정도인 ‘자기인식’ 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원이 등(2005)의 연구에서 Cronbach'α 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α는 .91이었으며, 각 하위요인들의 Cronbach'α는 .71, .79, .82, .81였다.

<표6> 인터넷 중독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신뢰도
가상세계 지향	1, 2, 3, 4, 5, 6 (6문항)	.71
긍정적 기대	7, 8, 9, 10 (4문항)	.79
내성 및 몰입	11, 12, 13, 14, 15, 16 (6문항)	.82
인터넷에 대한 자기 인식	17, 18, 19, 20 (4문항)	.81
전체	(20문항)	.91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해 SPSS 15.0과 AMOS 7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2)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 3) 각 변인별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와 첨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4)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5) 경험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6)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 본 연구에서 세운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1.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1)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연구 대상자의 주요 변인별 기술 통계치는 다음의 <표7>와 같다.

<표7>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연구변인	측정문항	평정	평균(M)	표준편차(SD)	원점수	측정점수
내현적 자기애	45	5	125.40	22.23	45-225	61-203
경험회피	16	7	64.05	11.53	16-112	19-105
인터넷 중독	20	4	35.56	9.75	80	20-70

2) 측정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상분포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에 정상분포조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측정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았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정상분포조건은 2미만의 편포도와 4미만의 첨도를 가지는 것인데(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편도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정상분포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다음 <표8>에 제시되어 있다.

<표8> 측정변인의 내용과 기술통계치

잠재변인	측정변인	평균(M)	표준편차 (SD)	편포도	첨도
내현적 자기애	목표불안정	23.89	7.38	.053	-.543
	인정욕구/ 거대자기 환상	29.89	5.31	.028	.098
	착취/자기중심성	20.78	5.48	.477	.229
	과민/취약성	24.64	6.42	.126	-.062
	소심/자신감 부족	26.19	6.16	-.266	-.329
경험회피	기꺼이 경험하기	35.27	6.61	.062	.380
	행동요인	28.78	6.17	-.221	.338
인터넷 중독	가상세계 지향	9.29	2.56	1.398	2.111
	긍정적 기대	6.66	2.37	1.090	.989
	내성 및 몰입	13.07	4.00	.303	-.608
	인터넷에 대한 자기 인식	8.89	3.34	1.102	.769

2.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내현적 자기애, 인터넷 중독, 경험회피간의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애는 종속변인인 인터넷 중독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r = .394, p < .001$),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애는 매개변인인 경험회피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r = .595, p < .001$), 매개변인인 경험회피는 종속변인인 인터넷 중독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r = .336, p < .01$). 이를 종합해 보면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과 경험회피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 2와 관련하여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과 경험회피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유요인인 목표불안정($r = .451, p < .001$), 과민취약성($r = .583, p < .001$), 소심/자신감부족($r = .479, p < .001$)이 공통요인인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r = .322, p < .001$)과 착취/자기중심성($r = .269, p < .001$)보다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경험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하위요인들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다음의 회귀분석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어떠한 것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표9> 각 변인 간 상관계수

	1	1-1	1-2	1-3	1-4	1-5	2	2-1	2-2	3	3-1	3-2	3-3	3-4
1. 내현적 자기에	1													
1-1. 목표불안정	.712***	1												
1-2. 인정욕구/거대 자기환상	.643***	.223***	1											
1-3. 착취/자기중심성	.653***	.286***	.474***	1										
1-4. 과민/취약성	.875***	.539***	.473***	.471***	1									
1-5. 소심/자신감 부족	.703***	.359***	.276***	.222***	.638***	1								
2. 경험회피	.595***	.451***	.322***	.269***	.583***	.479***	1							
2-1. 기꺼이 경험하기	.563***	.431***	.282***	.247***	.550***	.476***	.909***	1						
2-2. 행동요인	.509***	.381***	.300***	.238***	.501***	.386***	.895***	.627***	1					
3 인터넷 중독	.394***	.277***	.220***	.340***	.334***	.248***	.336***	.352***	.250***	1				
3-1. 가상세계 지향	.318***	.205***	.190***	.365***	.243***	.157***	.278***	.272***	.227***	.794***	1			
3-2. 긍정적 기대	.291***	.187***	.196***	.258***	.257***	.158***	.249***	.239***	.208***	.772***	.613***	1		
3-3. 내성 및 몰입	.369***	.273***	.220***	.258***	.306***	.263***	.330***	.355***	.236***	.888***	.569***	.568***	1	
3-4. 인터넷에 대한 자기인식	.328***	.232***	.154***	.265***	.292***	.229***	.270***	.300***	.183***	.848***	.552***	.480***	.726***	1

3. 경험회피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

내현적 자기애와 경험회피에 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확인되었고, 이에 내현적 자기애의 어떤 하위요인이 경험회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있다.

<표10> 경험회피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각 하위요인들의 효과

		내현적 자기애				
		목표 불안정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부족
경험회피 R=.624	Beta	.193	.081	-.023	.339	.177
	T	4.135***	1.720	-.496	5.353***	3.448**
기꺼이 경험하기 R=.531	Beta	.159	.099	-.024	.310	.110
	T	3.144**	1.942	-.473	4.507***	1.975*
행동요인 R=.595	Beta	.188	.049	-.018	.303	.206
	T	3.920***	1.007	-.377	4.644***	3.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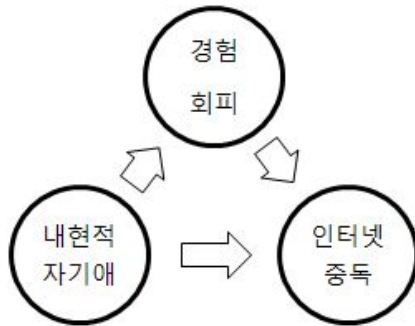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는 경험회피에 대해서 약 39%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회피의 하위요인인 기꺼이 경험하기에 대해서는 28% 다른 하위요인인 행동요인에 대해서는 3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들이 경험회피와 경험회피의 하위요인들을 설명함에 있어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의 하위요인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하위요인은 모두 내현적 자기애의 고유요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이었던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과 착취/자기중심성은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에 비해서 경험회피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에 내현적 자기애와 회피적 대처방식이 관련이 있던 것처럼 내현적 자기애와 경험회피 역시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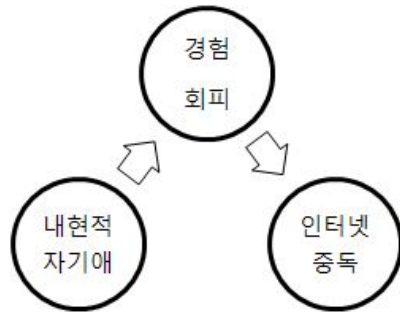
4.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 있어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를 통해 구조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단일평가 방법과 경쟁모형방법이 있다. 단일평가방법은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지수(MI : Modification Index)와 CR(Critical Ratio) 값을 고려하여 모형을 확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경쟁모형방법은 관련 이론과 기존 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다른 이론이나 기타 문헌에서의 반박주장 및 간명도의 원리 등에 따라 경쟁모형을 설정한 후 이 둘 간의 비교를 통해 자료와 잘 맞는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는 것이다(배병렬, 2007; Joreskog & Sorbom, 1993). 본 연구에서는 경쟁모형방법을 통해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 있어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완전매개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모형 간 비교를 통해 부분매개가 이루어지는지, 완전매개가 이루어지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2> 연구모형



<그림3> 경쟁모형

4.1 모형검증

χ^2 검증은 경쟁모형이 연구모형에 내포(nested)되어 있는 경우 모형비교를 위한 것으로, 각 모형들의 χ^2 값과 자유도의 증가 혹은 감소에 따른 유의도 수준을 비교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배병렬, 2007). 이 때 $p < .05$ 유의도 수준에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이 차이가 없다고 영가설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자유도 1의 차이 시 χ^2 값에서 3.84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두 모형간의 χ^2 차이가 유의하다면 두 모형 간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고 자유도가 작은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 두 모형간의 χ^2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면 두 모형이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때에는 ‘간결의 원칙’에 의해 더 간단한 모형 즉, 자유도가 더 큰 모형이 선호된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특정모형이 실제 자료와 부합되는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χ^2 값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χ^2 검증은 $F \times (\text{표본 크기} - 1)$ 의 값을 통해 결정되므로 표본 크기에 민감하다(김주환

외, 2009). 즉, 표본크기가 클수록 모형이 쉽게 기각당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χ^2 값과 자유도에 더 하여 χ^2 검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들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적합도 지수들은 GFI, CFI, TLI, RMAEA로 총 4가지이다. GFI(Goodness-of-Fit-Index)는 원래의 자료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자료간의 차이의 비율에 기초한 것이다. 보편적으로 권장되는 수용 수준은 0.90이상이고 표본크기가 200이상이면 제안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FI(Comparative Fit Index)는 자유도에 따른 오차를 감소시켜 그 영향을 배제하고 모형을 비교하는 비교 부합치로 0.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본다. TLI(Turker-Lewis Index)는 기초모형에 대해 제안모형과 대안모형의 비교를 위해 모형의 간명도(자유도)를 결합하여 측정한 것으로, 권장 수용기준은 0.90이상이다.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모형을 표본이 아닌 모집단에서 추정할 때 기대되는 적합도 지수로 <.05면 좋은 적합도,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면 보통 적합도, >.10이면 나쁜 적합도로 본다(김주환 외, 2009; Browne & Cudeck, 1993).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에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였다. 측정변인의 오차를 고려하여 두 모형 모두 같은 잔차 간의 연결을 하였고, χ^2 와 자유도,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표11> 연구모형과 경쟁 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p	GFI	CFI	TLI	RMSEA
연구모형	99.7	39	.000	.958	.953	.966	.062
경쟁모형	104	40	.000	.956	.964	.951	.063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해보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GFI, CFI, TLI가 .90이상, RMSEA가 .10이하로 두 모형 모두 좋은 적합도 지수들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두 모형은 각기 다른 모형으로 두 모형을 모두 채택할 수 없으며, 두 모형 중 어떤 모형이 더 적절한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두 모형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경쟁모형이 연구모형에 내포(nested)되어있는 관계로 이에 χ^2 값과 자유도를 비교하여보았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자유도 차이는 1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유의한 차이를 위해서는 3.84이상의 χ^2 차이가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값의 차이는 4.3으로 두 모형은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두 모형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 자유도가 작은 모형이 채택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채택하였다. 즉,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부분매개 모형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고 이를 채택하였다.

4.2. 연구모형에서 나타난 경로계수와 매개효과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모형적합도가 검증된 연구모형을 대상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12>에 제시되어있다. 경로계수들을 살펴보면 모든 변인들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할 뿐 아니라 경험회피를 통해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도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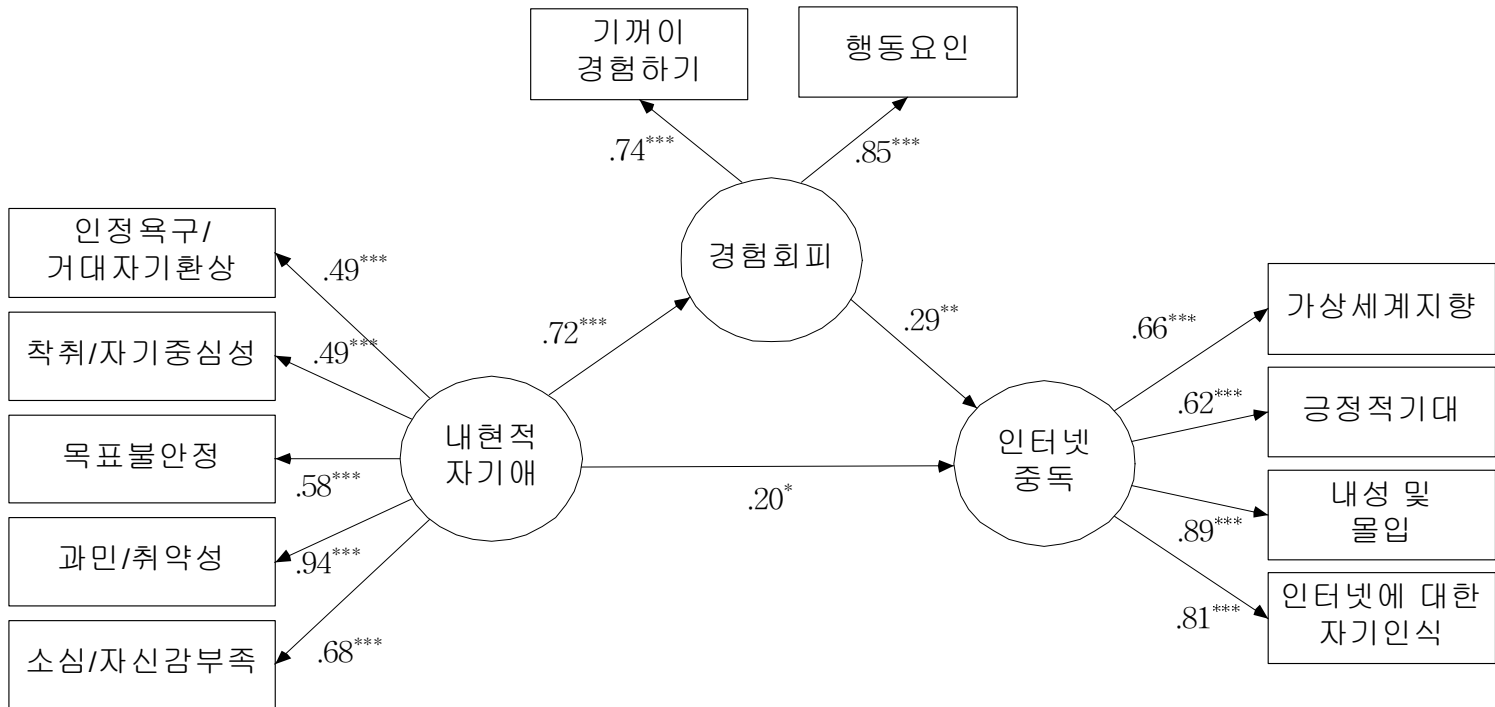
모형의 검증성을 높이기 위해서 Sobel test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Zab 값이 2.836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2> 연구모형의 경로검증 결과

경로	모수추정치	S.E.	C.R.
경험회피 ← 내현적 자기애	.968(.724) ^{***}	.086	11.254
인터넷 중독 ← 경험회피	.085(.285) ^{**}	.029	2.947
인터넷 중독 ← 내현적 자기애	.079(.197) [*]	.039	2.176

모수추정치의 숫자는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는 괄호 안에 제시.

^{***} $p < .001$



<그림4> 내현적 자기애, 인터넷 중독, 경험회피의 경로계수

4.3.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영향력의 크기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경로계수가 유의미하게 입증된 경로의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간접효과(Indirect Effect)를 알아보았다. 경로계수를 보면 내현적 자기애가 경험회피를 매개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었을 때 경로계수는 .083(.968×.085)이었고, 내현적 자기애가 경험회피를 매개로 하지 않고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경우 경로계수는 .079였다. 이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가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내현적 자기애가 경험회피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는 경험회피 변량의 94%를 설명하였고, 경험회피는 인터넷 중독의 변량을 1%만큼 설명하였다.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와 경험회피는 인터넷 중독 변량의 2%만큼을 설명하였다. 연구모형의 변인들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계수는 <표13>에 제시하였다.

<표13> 주요 변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내현적 자기애	경험회피	.968	.000	.968
내현적 자기애	인터넷 중독	.079	.083	.162
경험회피	인터넷 중독	.085	.000	.085

VI.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진행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 경험회피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과 하위요인간에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할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과 경험회피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이계정, 2008)와 일치하며,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경험회피 수준이 높다는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윤성민, 신희천, 2007). 팽현기(2003)와 하선근(2008)의 연구는 회피적인 대처를 사용할수록 인터넷 중독이 높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경험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회피적인 행동방식과 중독간의 관계에서 추론하였던 경험회피와 인터넷 중독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것으로, 둘 간의 상관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들 중 경험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요인인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인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과 착취/자기중심성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볼 때 경험회피는 외현적 자기애자들에게는 없는 내현적 자기애자들만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이론적 구분을 더욱 타당화해줌과 동시에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불쾌한 사건들을 피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기존의 제안을 지지한다(정남운, 2001; 박세란, 2004; Akhtar & Thomson, 1982; Cooper, 2000; Dickinson et al., 2003). 특히 경험회피가 개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취약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Hayes et al., 2004; Kashdan, Barrios, Forsyth & Steger, 2006),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에 비해 더 부적응적이고 역기능적이라는 기존 연구들(Gabbard, 1989; Gerstern, 1991; Kohut, 1997; Wink, 1991)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이를 비교함으로써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이 채택되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경험회피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인터넷 중독 수준이 더 높을 뿐 아니라 경험회피를 더 사용함으로써 인터넷 중독 성향을 더 높인다는 것이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의 중독성향을 확인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이계정, 2006), 경험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높다는 Hayes와 Pierson(2005)의 제안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유사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변인들의 관련성을 추론하여 가설들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내현적 자기

애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경험회피가 매개함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개인의 특성의 이해를 도왔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다는 것과 경험회피를 하는 개인의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터넷 중독을 연구함에 있어 새로운 주제가 될 수 있겠으며, 인터넷 중독을 치료함에 있어서도 인터넷 중독자에 대한 하나의 가설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터넷 중독 치료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높은 경험회피 수준은 인터넷 중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험회피 수준을 낮추는 개입을 통해서 인터넷 중독 수준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정적인 경험을 회피하기보다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수용함으로써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슈탈트 치료나 수용전념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겠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경험회피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경험회피가 일반적인 심리적 취약요인인 것을 고려할 때,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심리적 문제를 유발하는 경로에 경험회피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된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를 이해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척도를 이용하여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경험회피와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다는 유의한 결과나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외

현적 자기애와의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모두를 고려한 모형의 검증이 필요 하겠다.

둘째,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 중 인터넷 중독에만 초점을 두었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경험회피 수준이 높더라도 꼭 인터넷 중독이 높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인터넷 중독이 아닌 다른 대상의 중독 으로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중독의 기저는 같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인터넷 중독만을 종속변인으로 사용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제한점이 있겠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 른 다양한 중독 개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셋째, 연구에 사용한 도구의 문제가 있다. 경험회피 척도의 경우 문현미(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가 .82였으나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전체 .77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하위요인들의 Cronbach's α 는 기꺼이 경험하기가 .62, 행동요인이 .64였다. 낮은 연구의 Cronbach's α 는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낮출 수 있기에 이후 연 구에서는 더 신뢰도가 높은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된다.

넷째, 연구 참가자가 대학생 집단이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 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특히 참가자들이 모두 서울, 경기 소재에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국내 전체 성인집단과 비교함에 있어 차이가 나타날 수 있겠다.

다섯째,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참가자들의 반응이 특정 상 황이나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무성의 한 응답이나 극단적인 반응은 문항에서 제외하였지만, 평정을 함에

있어 중앙 집중 경향성은 상대적으로 제외하기 어렵다. 또한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방어기체에 따른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한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선희, 정남운(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강연우(2004). 자기애와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 특성의 관계. 가톨릭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은정, 장성숙(2007). 자기애와 내현적 대인반응과의 관계. 한국심리
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13-932.
- 권석만, 한수정(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 지나친 자기 사랑의 함
정. 서울 : 학지사.
- 권재환(2008). 청소년의 게임중독과 심리적·환경적 요인과의 관계에
서 대인관계 기술의 매개효과. 사회연구 사회연구 2006년 제
1호 pp.145~187.
- 김민정, 도현심, 박보경, 이혜린(2009).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우울/불안의 매개적 역할. 아동학회지 제30권 제2호
(2009년 4월) pp.97-112.
- 김선우(2002). 인터넷 중독의 실태와 영향요인 연구 :소외를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은미, 김현주(2004).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의사소통 양식의 특징
과 쟁점. 사회과학 논문집, 34, 91-112.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커뮤니
케이션 북스.
- 김창대 외 역(2008). 대상관계이론 입문(Lavinia Gomez). 학지사.

- 김철민(2003). 초등학생이 게임중독과 충동성 및 대인불안과의 관계. 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환, 이훈진(2007). 경험적 회피와 회피적 반응의 관계 : 행동적 회피, 감추기 및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6, 225-243.
- 문현미(2006). 심리적 수용 촉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 수용-전념치료 모델을 중심으로. 가톨릭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희경(2007). 내현적 자기애, 권태성향 및 사적 자의식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동숙(2004). 내현적 자기애와 불안, 완벽주의, 강박증상간의 관련성.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상규 외(2009). 중독의 이해와 상담실제. 학지사.
- 박세란(2004).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b).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의 명시적, 간접적 귀인양식.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4(2), 465.
- 박순희(2009).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표현 양식이 대인관계와 심리적 고통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은(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 및 영향변인 연구. 숙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종민, 오종환(2001). 인터넷과 TV의 매체 속성과 이용 동기에 대한 수용자 연구. 언론과학연구, 1(1), 156-192.
- 박종민, 오종환(2004). 휴대전화, 인터넷, 텔레비전의 미디어 속성 차이와 이용 동기 연구. 한국언론학보, 48(2), 221-249.

- 박진숙(2007).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 청소년의 분노표현양식과 대인관계문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병렬 (2007). Amos 17.0 구조방정식의 모델링 - 원리와 실제. 도서출판 청람.
- 백승혜(2005).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 표현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진옥(2008). 청소년의 자기애 성향과 내현화, 외현과 문제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선이(2007). 내현적자기애와 정서조절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현민(2009).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사회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변인으로. 건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심영숙, 이영호(2009). 악몽과 정신병리 : 경험회피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8, 4, 1207-1216.
- 안도연(2008). 외로움이 자기애 성향자들의 인터넷 중독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석모 역(2009). 대상관계 이론과 자기심리학(Michael St. Clair). 시그마프레스.
- 안차수(2008). 초등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이 인터넷 중독과 예방프로그램의 효능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8권 3호 347-381.
- 오홍석(2007).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 유형.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원주식(2006).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좌절 경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윤성민, 신희천(2007).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 경험 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9, 967-982.
- 윤순임 외 역(2008). 경계선 장애와 병리적 나르시시즘(Otto F. Kernberg). 학지사.
- 이계정(2006).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인터넷 과다사용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군자(2009). 내현적 자기애와 사랑의 구성요소 및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미, 이숙(2009). 내현적 자기애와 청소년의 우울 및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놀이치료연구-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13권 2호 15-28.
- 이선숙(2005).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가상공간에서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원희(2001). 자기애와 완벽주의, 적대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인숙(2002). 대학생의 자기애 성향과 대인불안 및 방어성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훈 역(2004). 대상관계의 이론과 정신병리학(Frank L. Summers). 한국 심리치료 연구소
- 이정은(2005). 걱정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일반화된 불안증상간의 관

계에서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검증. 한림대 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이정은, 조용래(2007). 걱정에 관한 부정적 신념과 일반화된 불안증
강 산의 관계에서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한국 심리학회지
: 임상, 26, 939-961.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2007). 내현적,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자기
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6(2), 463-477.

이준득(2005).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분노특성. 서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이진숙(2008). 내현적 자기애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소극적
대처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구조 방
정식 모형 검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춘희(2007).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장건희(2007). 자기애와 자기불일치 및 사회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
교 석사학위 논문.

정남운(2001). 과민성 자기애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
담 및 심리치료, 10(1), 143-166.

정순민, 정일근, 조진석, 조현기, 이덕기, 변원탄(2005).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 회피 및 DSM-IV 진단분류에 따른
인격특성과의 관련성. 사회정신의학, vol.10 no.1, 3-10.

조용래(2008). 걱정의 통제 불능성/위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시험
불안의 관계 : 경험 회피의 매개역할. 한국 심리학회지 : 임

상, 27, 891-909.

조용래, 채숙희, 최연숙(2009). 우울과 불안 증상 및 안녕감에서 경험 회피와 마음챙김 주의 자각의 역할. **한국 심리학회지 : 임상**, 28, 1135-1154.

주정민(2006). 인터넷 의존 유형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 연구. **한국 언어학회**.

천동학(2008).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수용의 완충효과 : 치의대상 표본을 대상으로. 서울불교대학원 석사논문.

최정안(2009). 평가적 피드백에 따른 자기애 성향자의 자존감 변화 및 정서조절 방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팽현기(2003).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우울감·충동성·사회 회피 및 불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하선근(2008).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대인불안 및 정서조절양식과의 관계. 창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하정희, 허보연, 강연우, 송언희(2009).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 불안의 매개효과와 독립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1, 683-701.

한국 인터넷 진흥원(2010). 201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보고서. 한국 인터넷 진흥원.

한국 정보화 진흥원(2010).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결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수정(1999). 자기애적 성향자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혜림(2004).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khtar, S., & Thomson Jr,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

Ashby, H. U., Lee, R. R., & Duke, E. H.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MMPI scale. *87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York, NY*,

Baker, T. B., Piper, M. E., McCarthy, D. E., Majeskie, M. R., & Fiore, M. C. (2004). Addiction motivation reformulated: An affective processing model of negative reinforcement. *Psychological Review*, 111(1), 33-51.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Batten, S. V., & Hayes, S. C. (2005).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in the treatment of comorbid

substance abus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linical Case Studies, 4(3), 246.

Brenner, C. (1973). *An elementary textbook of psychoanalysis*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New York.

Browne, M. W., Cudeck, R., Bollen, K. A., & Long, J. S.

(1993).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Conway, K. P., Kane, R. J., Ball, S. A., Poling, J. C., &

Rounsaville, B. J. (2003). Personality, substance of choice, and polysubstance involvement among substance dependent patient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71(1), 65-75.

Cooper, A. M. (1981). Narcissism.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4, 297-316.

Cooper, A. M. (2000).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 53-74.

- Cooper, A. M., & Ronningstam, E. (1992).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Psychiatric Press Review of Psychiatry, 1*, 80-97.
- Degenova, M. K., Patton, D. M., Jurich, J. A., & MacDermid, S. M. (1994). Ways of coping among HIV-infected individual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4*(5), 655-663.
- Dickinson, K. A., & Pincus, A. L. (2003). Interpersonal analysi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7*(3), 188-207.
- Dougherty, R. J., & Lesswing, N. J. (1989). Inpatient cocaine abusers: An analysis of psychological and demographic variables.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6*(1), 45-47.
- Eifert, G. H., & Forsyth, J. P. (2005). *Acceptance & commitment therapy for anxiety disorders: A practitioner's treatment guide to using mindfulness, acceptance, and*

values-based behavior change strategies New Harbinger
Pubns Inc.

Feldner, M. T., Zvolensky, M. J., Eifert, G. H., & Spira, A. P. (2003). Emotional avoidance: An experimental test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response suppression using biological challeng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4), 403-411.

Fernandez, L., & Sztulman, H. (1998). Variability of tobacco addiction and narcissistic disposition: A comparison of non-smokers and smokers undergoing stop smoking treatment. *European Psychiatry*, *13*, 231s.

Finch, A. J., Simon, N. P., & Nezu, C. M. (2006). The future of clinical psychology: Board certification. *Clinical Psychology: Science & Practice*, *13*(3), 254-257.

Freud, S. (1914).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Standard Edition*, *14*, 73-102.

Freud, S. (1957).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standard edition, 14: 67-102.

- Gabbard, G. O. (1989). Two subtype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53(6), 527-532.
- Gersten, S. P. (1991).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consists of two distinct subtypes. *Psychiatric Times*, 8, 25-26.
- Gold, D. B., & Wegner, D. M. (1995). Origins of ruminative thought: Trauma, incompleteness, nondisclosure, and suppress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5(14), 1245-1261.
- Goldberg, I. (1995). Internet addiction disorder. *Diagnostic Criteria. Internet Addiction Support Group (IASG)[En Línea]*,
- Greco, L. A., Heffner, M., Poe, S., Ritchie, S., Polak, M., & Lynch, S. K. (2005). Maternal adjustment following preterm birth: Contributions of experiential avoidance*. *Behavior Therapy*, 36(2), 177-184.

- Greenberg, L. S., & Safran, J. D. (1987). *Emotion in psychotherapy* Guilford Press New York.
- Greenberg, L. S., & Safran, J. D. (1989). Emotion in psychotherapy. *American Psychologist*, *44*(1), 19-29.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 Hannigan, B., Edwards, D., & Burnard, P. (2004). Stress and stress management in clinical psychology: Findings from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Mental Health*, *13*(3), 235-245.
- Hayes, S. (1999). Wilson (1999) SC hayes, KD strosahl and KG wilson,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n experiential approach to behavior change.
- Hayes, S. C., Strosahl, K., Wilson, K. G., Bissett, R. T., Pistorello, J., Toarmino, D., et al. (2004). Measuring

experiential avoidance: A preliminary test of a working model. *The Psychological Record*, 54(4), 553-579.

Hayes, S. C., Wilson, K. G., Gifford, E. V., Follette, V. M., & Strosahl, K. (1996). Experiential avoidance and behavioral disorders: A functional dimensional approach to diagnosis and trea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6), 1152-1168.

Hibbard, S. (1992). Narcissism, shame, masochism, and object relations: An exploratory correlational study. *Psychoanalytic Psychology*, 9(4), 489-508.

HIM, P. C. H. I. (2010). *Effects of Narcissism, Leisure Boredom and Gratifications-Sought on User-Generated Content among Net-Generation*,

Hollander, E., & Allen, A. (2006). Is compulsive buying a real disorder, and is it really compulsiv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3(10), 1670.

Hutcheson, D., Everitt, B., Robbins, T., & Dickinson, A. (2001). The role of withdrawal in heroin addiction:

Enhances reward or promotes avoidance? *Nature Neuroscience*, 4(9), 943-947.

Ireland, S. J., McMahon, R. C., Malow, R. M., & Kouzekanani, K. (1993). Coping style as a predictor of relapse to cocaine abuse. *Problem of Drug Dependence*,

Jacobs, D. F. (1986). A general theory of addictions: A new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1), 15-31.

James, L. C. (2006). Clinical health psychology institute: Integrating clinical health psychology into primary care setting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10), 1205-1206.

Jian-sheng, Y. X. L. I. (2006). Research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daptation abilities, personality traits and internet addiction [J]. *Chines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3

Jöreskog, K. G., & Sörbom, D. (1993). *LISREL 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the SIMPLIS command language* Scientific Software.

Kashdan, T. B., Barrios, V., Forsyth, J. P., & Steger, M. F. (2006). Experiential avoidance as a generalized psychological vulnerability: Comparisons with coping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9), 1301-1320.

Kernberg, O.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Links,*

Kim, E. J., Namkoong, K., Ku, T., & Kim, S. J.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online game addiction and aggression, self-control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traits. *European Psychiatry, 23*(3), 212-218.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

Levin, J. D. (1987). *Treatment of alcoholism and other addictions: A self-psychology approach* Jason Aronson.

Lin, M. (2009). A study on the correlations among personality traits, life attitudes and internet addiction for sixth graders in changhua county.

Luchins, A. S. (1952). Towards an experimental clinical psyc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20*(4), 440.

Luoma, J. B., Kohlenberg, B. S., Hayes, S. C., Bunting, K., & Rye, A. K. (2008). Reducing self-stigma in substance abuse through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odel, manual development, and pilot outcomes. *Addiction Research & Theory, 16*(2), 149-165.

Luoma, J. B., Twohig, M. P., Waltz, T., Hayes, S. C., Roget, N., Padilla, M., et al. (2007). An investigation of stigma in individuals receiving treatment for substance abuse. *Addictive Behaviors, 32*(7), 1331-1346.

Masterson, J. F. (1981). *The narcissistic and borderline disorders: An integrated developmental approach*. Routledge.

Morey, L. C., Waugh, M. H., & Blashfield, R. K. (1985). MMPI scales for DSM-III personality disorders: Their derivation and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3), 245-251.

Morina, N. (2007). The role of experiential avoidance in psychological functioning after war-related stress in kosovar civilian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5(8), 697.

Morrison, A. P. (1983). Shame, ideal self, and narcissism. *Contemporary Psychoanalysis*, 19, 295-318.

Pepper, L. J., & Strong, P. N. (1958). Judgmental subscales for the mf scale of the MMPI. *Unpublished Manuscript*,

Raskin, R., & Novacek, J. (1989). An MMPI description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3(1), 66-80.

- Raskin, R., Novacek, J., & Hogan, R. (1991). Narcissism, self-esteem, and defensive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59*(1), 19-38.
- Rathvon, N., & Holmstrom, R. W. (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1), 1-19.
- Robbins, S. B., & Dupont, P. (1971). Narcissistic needs of the self and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behavior. *Mental, 1977*, 1984.
- Rose, P. (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3), 379-391.
- Rozensky, R. H. (2006). Clinical psychology in medical settings: Celebrating our past, enjoying the present, building our futur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in Medical Settings, 13*(4), 343-352.
- Santanello, A. W., & Gardner, F. L. (2007). The role of experiential avoid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worr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1(3), 319-332.

Sayette, M. A., & Mayne, T. J. (1990). Survey of current clinical and research trends in clinical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45(11), 1263.

Schurman, C. L. (2000). *Social phobia, shame and hypersensitive narcissism* Wright Institute,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Serkownek, K. (1975). Subscales for scales 5 and 0 of the MMPI. *Unpublished Manuscript*,

Tull, M. T., Gratz, K. L., Salters, K., & Roemer, L. (2004). The role of experiential avoidance i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nd symptoms of depression, anxiety, and somatization.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2(11), 754.

Van Dyne, L., Graham, J. W., & Dienesch, R. M. (1994).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Construct redefinition,

measurement, and valid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7(4), 765-802.

Wall, G. K., Pearce, E., & McGuire, J. (2010). Are internet offenders emotionally avoidant? *Psychology, Crime & Law*, 99999(1), 1-21.

Wegner, D. M., & Zanakos, S. (1994). Chronic thought sup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62(4), 615-640.

Wilson, K. G., Hayes, S. C., & Byrd, M. R. (2000). Exploring compatibilities between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nd 12-step treatment for substance abuse.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18(4), 209-234.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Wink, P., & Gough, H. G. (1990). New narcissism scales for the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and MMPI.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3), 446-462.

Young, K. S. (1996).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 c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sychological Reports, 79*(3), 899-902.

Young, K. S. (1997). What makes the internet addictive: Potential explanations for pathological internet use. *105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15* 12-30.

Young, K. S. (1998).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 Behavior, 1*(3), 237-244.

ABSTRACT

The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on Internet Addiction : Mediated by experiential avoidance

Sun-Ha J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on internet addiction and the role of the experiential avoid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internet addiction. The subjects were 404 College students recruited from the Universities in Metropolitan Seoul and Gyeonggi areas.

Covert Narcissism Scale(CNS), 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16(AAQ-16),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Adults(K-scale) were administered to the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First, correlation analysi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early covert narcissism, internet addiction, experiential avoidance. The higher covert narcissism level caused the higher internet addiction level and higher experiential level.

Second, only characteristic factors in cover narcissism scale influence experiential avoidance and its sub-factor.

Third, experiential avoidance showed a partial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internet addic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showed that the study model's fitness was examined and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model was accepted.

Finally, based on the finding results,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the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were recommended.

Key words : covert narcissism, internet addiction, experiential avoidance

부 록

부록1. 내현적 자기에 척도

부록2. 경험회피 척도

부록3. 인터넷 중독 척도

부록1. 내현적 자기에 척도

	문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때 때 로 그 렇 지 않 다	중 간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전 적 으 로 그 렇 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3.	비판받을 때, 나는 쉽게 굴욕감을 느낀다.	1	2	3	4	5
4.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 많은 돈을 쓰기를 바란다.	1	2	3	4	5
5.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도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1	2	3	4	5
6.	나는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처럼 그려보고 싶다.	1	2	3	4	5
7.	나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다.	1	2	3	4	5
8.	나는 가끔 남의 비평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1	2	3	4	5
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해올 때 때때로 짜증이 난다.	1	2	3	4	5
10.	가족들 중에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11.	나에게 즐거운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는다.	1	2	3	4	5
12.	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 문제로 와서 내 시간을 요구하거나 공감해주기를 요구할 때 말은 못해도 괴롭고 귀찮다.	1	2	3	4	5
13.	나는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14.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15.	나에게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1	2	3	4	5
16.	속기보다는 차라리 남을 속이는 것이 좋다.	1	2	3	4	5

17.	나는 내게 부족한 것(예를 들어 외모, 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가 난다.	1	2	3	4	5
18.	때때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할 때가 있다.	1	2	3	4	5
19.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봤을 때 내 인생은 남들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1	2	3	4	5
20.	내 삶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	1	2	3	4	5
21.	나는 겁이 많고 소심한 편이다.	1	2	3	4	5
22.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우가 있다.	1	2	3	4	5
23.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24.	나는 여러 가지 일에 모두 뛰어나길 바란다.	1	2	3	4	5
25.	사람들이 나의 결정을 알아차릴까봐 자주 두렵다.	1	2	3	4	5
26.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많다.	1	2	3	4	5
27.	필요하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할 것이다.	1	2	3	4	5
28.	나는 어떤 모임에 참석하든 항상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앉는 편이다.	1	2	3	4	5
29.	나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1	2	3	4	5
30.	직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할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31.	나는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면, 두고두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편이다.	1	2	3	4	5
32.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활기가 적은 편이다.	1	2	3	4	5
33.	나는 사람들이 왜 나의 장점을 더 알아주지 않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34.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별로 긴장하지 않는다.	1	2	3	4	5
35.	나는 나에게 득이 될 때만 '공평의 원칙'을 지킨다.	1	2	3	4	5
36.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종종 매우 외롭고 불편하다.	1	2	3	4	5

37.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낀다.	1	2	3	4	5
38.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높이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39.	나는 혼자서는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5
40.	요 며칠동안 나는 계속 슬프고 우울했는데 쉽게 이런 기분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1	2	3	4	5
41.	누군가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아주 힘이 든다.	1	2	3	4	5
42.	나는 일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1	2	3	4	5
43.	항상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	1	2	3	4	5
44.	나의 문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정말 모른다는 것이다.	1	2	3	4	5
45.	기회가 된다면 나는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것이다	1	2	3	4	5

부록2. 수용 행동 질문지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이 옳은지 확실치 않아도 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	1	2	3	4	5	6	7
2.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나는 책임을 다할 수 없다.	1	2	3	4	5	6	7
3.	원치 않는 생각이나 감정이 들면, 이를 생각하지 않으므로써 억제하려고 애쓴다.	1	2	3	4	5	6	7
4.	우울하거나 불안해도 괜찮다.	1	2	3	4	5	6	7
5.	불안, 걱정 및 감정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별로 염려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6.	중요한 일을 하려면 나는 모든 불확실함을 해결해야 한다.	1	2	3	4	5	6	7
7.	내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8.	우울하거나 불안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1	2	3	4	5	6	7
9.	불안은 나쁘다.	1	2	3	4	5	6	7
10.	불확실하더라도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느끼며 그에 전념한다.	1	2	3	4	5	6	7
11.	내가 인생에서 겪은 모든 고통스런 경험을 없앨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1	2	3	4	5	6	7
12.	내 삶을 잘 통제하고 있다.	1	2	3	4	5	6	7
13.	과업이 지겹더라도 마무리를 할 수 있다.	1	2	3	4	5	6	7
14.	걱정이 나의 성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1	2	3	4	5	6	7
15.	나는 그 순간의 감정대로 행동한다.(내 행동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1	2	3	4	5	6	7
16.	무엇을 하기로 다짐했다면 (나중에 하고 싶지 않더라도) 나는 그것을 한다.	1	2	3	4	5	6	7

부록3. 인터넷 중독 척도

	문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드 물 게 그 렇 다	가 끔 그 렇 다	자 주 그 렇 다	항 상 그 렇 다
1.	원래 마음먹은 생각보다 더 오랫동안 인터넷에 접속해 있었던 적이 있다.	1	2	3	4	5
2.	인터넷 때문에 일을 소홀히 한 적이 있다.	1	2	3	4	5
3.	이성 친구(또는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보다 인터넷에서 더 흥미를 느낀 적이 있다.	1	2	3	4	5
4.	온라인상의 친구를 만들어 본 적이 있다.	1	2	3	4	5
5.	온라인 접속시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평들은 적이 있다.	1	2	3	4	5
6.	온라인 접속을 오래 해서 일에 영향을 준 적이 있다.	1	2	3	4	5
7.	해야 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전자우편을 점검한 적이 있다.	1	2	3	4	5
8.	인터넷 때문에 업무 능률이나 생산성에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1	2	3	4	5
9.	누구나 인터넷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숨기거나 변명으로 얼버무린 적이 있다.	1	2	3	4	5
10.	인터넷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현재 생활의 어려운 문제를	1	2	3	4	5

	생각지 못했던 적이 있다.					
11.	인터넷 사용 후 다시 온라인에 접속할 때가 기다려진 적이 있다.	1	2	3	4	5
12.	인터넷이 없는 생활이 따분하고 공허하며 재미없을까봐 염려한 적이 있다.	1	2	3	4	5
13.	온라인에 접속하는 중 방해받았을 때 소리 지르거나 화를 낸 적이 있다.	1	2	3	4	5
14.	밤늦게까지 접속해 있느라 잠을 못 잔 적이 있다.	1	2	3	4	5
15.	오프라인 상태에서 인터넷에 정신이 팔려있거나 온라인에 접속해 있는 듯한 환상을 느낀 적이 있다.	1	2	3	4	5
16.	온라인에 접속해 있을 때 ‘몇 분만 더’하면서 시간을 허비한 적이 있다.	1	2	3	4	5
17.	온라인 접속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다.	1	2	3	4	5
18.	온라인 접속시간을 숨기려 한 적이 있다.	1	2	3	4	5
19.	다른 사람과 밖으로 외출하기보다 온라인에 머무르려고 접속한 적이 있다.	1	2	3	4	5
20.	오프라인 상태일 때는 기분이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온라인 상태로 오면 이런 경험이 모두 사라졌던 적이 있다.	1	2	3	4	5